

#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보와 정책: 녹색정보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정보화로

박상현(한국정보화진흥원)

어재경(한국정보화진흥원)

정지선(한국정보화진흥원)

## I. 서론

1987년 부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처음 제시된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 환경, 사회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진화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 또는 환경 정책을 위한 기본 틀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및 사회 전반의 규범적 틀 또는 실행 지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을 통해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 발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보다 구체화되었지만 그 범위는 오히려 축소된 경향이 있다. 이와는 상반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계속 진화하면서 당초 환경과 경제에 초점을 두던 개념은 경제, 환경, 사회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문화 다양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화 정책 역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의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으며 최근 기후변화 이슈와 함께 제기된 그린 IT 또는 녹색정보화 등의 개념 역시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글로벌 도전과제로 등장하고, IT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그린 IT는 IT 제조 부문의 유해물질 사용이나 폐가전제품 등에서 논의되던 환경적 이슈를 넘어 새로운 IT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에 본고는 미래 사회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더욱 중요한 위상을 가질 것이란 점에서 정보화 정책 방향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진화에 발맞춰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정보화의 개념 및 국내외 논의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녹색정보화 정책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보화 정책으로 진화하기 위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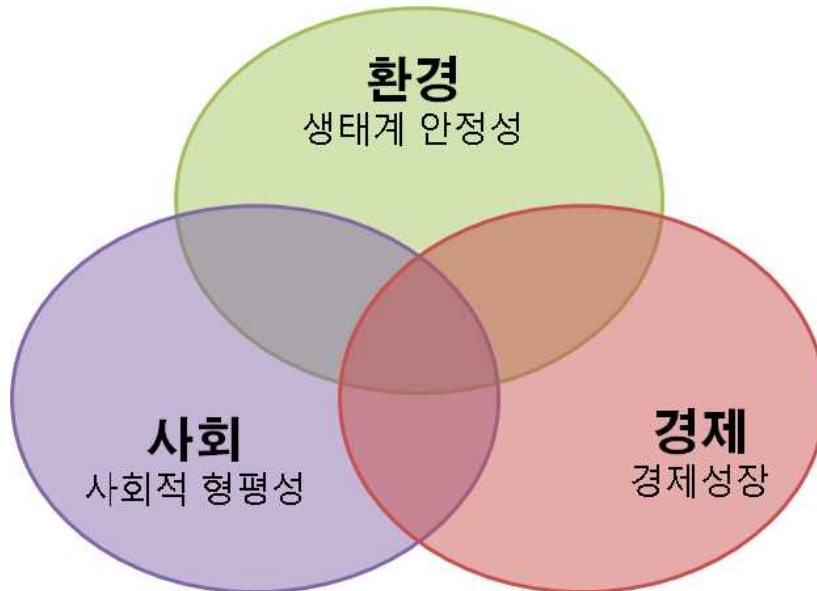
## II. 이론적 배경

### 1.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197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었으나,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그 개념이 구체화 되었다(사득환, 2000).

상기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도 이루면서 환경도 보전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경과 자연자원을 우리의 미래세대도 최소한 우리 세대만큼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김판석·사득환, 1999; 김리영·문태훈, 2011).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단순히 환경 정책적 기본틀을 넘어 경제적 성과(economic development), 환경적 책임(environmental stewardship),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홍중호, 2005).

〈그림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 확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사회 발전, 경제발전이 일어나는 상태를 지칭한다(서혜미·문태훈, 2010).